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7, VOL. 30, No. 1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7.30.1.023

『醫方類聚』의 醫案에 대한 연구
- 各 門別 분포와 引用書를 중심으로 -

구민석, 변정욱, 차웅석,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n the Yi'an (醫案) of *Euibangyoochui* (醫方類聚)
- Focusing on the Dispersion of Yi'an for each Chapter and its References -

Minseok Ku, Jung-Wuck Byun, Wung-Seok Cha, Namil Kim
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Euibangyoochui (醫方類聚), the largest medical book in Korea, has medic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d classified almost all East Asian medical accomplishments before Joseon Dynasty (1392-1910). Focusing on these values, this research investigates Yi'an (醫案), an East Asian tradition of describing clinical encounters and the therapies employed, in *Euibangyoochui*. By this investigation, this study expected to not only establish how the genre of Yi'an is employed for what purpose in *Euibangyoochui*, but also to shed a light on the appearance of Yi'an before Joseon Dynasty.

At first, this study extracted Yi'an from *Euibangyoochui* (醫方類聚), as Yi'an does not have a standardized format. In total, the number of extracted Yi'ans is 1,025 with handwork results. Extracted Yi'ans are analyzed statically, in order to find dispersion of Yi'ans for each chapter and its references. Overall, there are 73 chapters of *Euibangyoochui*, which has a total of 93 chapters, containing Yi'an, while the chapter on gynecology contains the highest number of Yi'ans, 86. Judged from these result, the genre of Yi'an was used diversely and frequently, indicating various messages in *Euibangyoochui*.

To categorize the usage and purpose of writing of Yi'ans in *Euibangyoochui*, this study considers some examples of Yi'ans and concludes that 3 types of Yi'ans are employed in *Euibangyoochui* in order to deliver the adequate medical message. One is result-centered Yi'an delivering a broader medical lesson, such as a taboo in treatment or a doctrine in medicine. The second is the concise-styled Yi'an presenting a short effective medical method. The third is multiple-information Yi'an that describes complex information of patients and medical theories, transmitting diverse lessons.

Yi'ans in *Euibangyoochui* refer to 58 medical books. Books written by JangJaHwa (張子和; 1156-1228) are the most cited books, offering almost a quarter of total amount of Yi'ans in *Euibangyoochui*.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information, such as numbers, applications, purpose of writing and references of Yi'an in *Euibangyoochui*. Moreover considering the historic values of *Euibangyoochui*, this information reflects, on the other hands, overall figures of Yi'an written before publication of *Euibangyoochui*.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Yi'an (醫案), *Euibangyoochui* (醫方類聚), Medical cases

Ⅰ. 序論

『醫方類聚』는 世宗 때 왕명으로 편찬이 착수 되었다가 1477년(成宗 8年)에 최초로 간행된 우리나라 最大의 醫書이다. 총 950만字 정도의 규모로 266卷 92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방만 5만여 개에 이르는 巨帙이다. 또한 『醫方類聚』는 200종 가량의 의서와 의학 관련서가 인용되었으며, 唐, 宋, 元, 明代 초기까지 중국 의서와 고려, 조선 초기까지 고유 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어 당시 최고 수준의 의학이 집대성되었다.[1] 聚珍板 『醫方類聚』를 간행한 丹波元堅은 序文에서 "일찍이 내가 망라하여 모아서 집대성이라고

접수▸2017년 05월 15일 수정▸2017년 05월 31일 채택▸2017년 05월 24일
교신저자▸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1) 맹웅재,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외. 『韓醫學通史』. 고양:대성의학사. 2006:205.

칭할만한 것을 구해보니, 조선에서 찬집한 『醫方類聚』만한 것이 없다.(嘗竊求之, 其網羅薈萃稱集大成者 未有如朝鮮國所輯醫方類聚也)"라면서 『醫方類聚』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醫方類聚』는 워낙 방대한 규모여서 다양한 키워드로 연구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축적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醫方類聚』의 구성 등에 대한 구조적 고찰이며 나머지는 『醫方類聚』에 내재된 의학사상에 대한 고찰이다. 『醫方類聚』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주로 2000年代 초반까지 이루어졌으며, 안상우, 최환수를 중심으로 『醫方類聚』의 인용서, 편찬 체재, 서술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2] 상기의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醫方類聚』의 구조적 특징이 밝혀진 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醫方類聚』 연구의 경향은 『醫方類聚』의 내재적 의학사상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룬다. 癎疾[3], 傷寒[4], 導引圖[5]등을 키워드로 『醫方類聚』의 의학사상을 조명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최근에는 『醫方類聚』에 내재된 의학지식의 구체적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醫方類聚』는 이 책이 간행되기 이전의 의학사를 대부분 모아 놓았을 뿐 아니라, 간행 이후에는 후대의 한국의서들에 초석이 되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사학적 가치를 지니는 연구대상이다. 특히 『醫方類聚』는 조선 전기 이전 동아시아 의학의 의학 성과를 각 분과별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여 그 자체에 醫學史的 통찰이 있으며, 이는 후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醫方類聚』에 대한 연구는 이 책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상당한 의료사적인 가치와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써 『醫方類聚』가 가지는 이러한 가치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醫方類聚』를 醫案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하고자 한다. 醫案은 '동아시아 의학의 임상 치험 사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상과 병기, 진단, 처방, 예후 등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실존했던 인물을 대상으로 하며 一家의 의학사상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도 하고, 醫論에 비해 그 성격이 실증적이며 구체적이어서, 醫案은 최근 주목받는 연구대상이다.

아직까지 『醫方類聚』를 醫案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醫方類聚』 내에 산재해 있는 醫案들을 추출하여, 『醫方類聚』의 醫案 분포와 활용양상, 『醫方類聚』 醫案의 원출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醫方類聚』 醫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醫方類聚』의 의료사적 가치에 주목한다면, 상기의 기초적인 정보는 곧, 조선 전기 이전 醫案에 대한 개괄이기도 하므로 의사학적인 의미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본론 1장에서 더 다룬다.

Ⅱ. 本論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醫方類聚』의 醫案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조명한다. 하나는 『醫方類聚』의 醫案이 各 門별로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며, 나머지는 『醫方類聚』가 어떤 책에서 얼마나 醫案을 인용하여 활용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醫方類聚』에서 醫案을 추출하는 것이다. 『醫方類聚』 醫案의 추출은 麗江出版社本 『醫方類聚』와 人民衛生出版社本 『醫方類聚』를 비교 열람하면서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6]

수작업을 통한 醫案의 정리는 키워드 검색을 통한 작업보다 정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지만, 연구자가 직접 醫案을 읽어보고 선택할 수 있다

2)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최환수, 신순식. 「『醫方類聚』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7;3(1):14-40.
안상우, 김남일. 「『醫方類聚』 總論의 體制와 引用方式 分析」. 경희한의대논문집. 1999;22(1):85-106.
안상우. 「『東醫寶鑑』의 '類聚' 인용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59-72.
안상우. 「『醫方類聚』의 編纂과 朝鮮前期 醫書」. 한국의사학회지. 2001;14(2):59-82.
3) 강연석, 이상섭, 박희수, 이서영. 「『醫方類聚·癲癎門』을 통해 본 한의학에서 癎疾의 역사」. 한국의사학회지. 2011;24(1):111-117.
4) 이경록. 「조선전기 『의방유취』의 성취와 한계 : 상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34(3):461-493.
5) 정지훈, 한봉재, 김동율. 「『醫方類聚』의 導引圖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41-50.
6)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麗江出版社本 『醫方類聚』와 人民衛生出版社本 『醫方類聚』는, 원본과 비교할 때 誤字가 많다는 단점이 있으나, 내용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醫案을 추출하는 수작업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였다. 또한 麗江出版社本 『醫方類聚』는 誤譯으로 인해 많은 비판이 있는 책이긴 하나, 본고는 醫案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데에 이 책을 활용했기 때문에 상술한 단점은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7.30.1.023

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醫案이라는 장르는 명확하게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서, 그 형식이 인용서에 따라 상이하고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검색을 통한 추출방법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환자에 대한 서술'이라는 최소의 기준으로 醫案을 정의하였으며, 醫案이라고 지칭하기 애매한 것은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醫案을 醫話나 醫說이라는 장르와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醫案 장르를 고정함으로써 '醫案의 개념화와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인식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므로 '案'이라는 글자의 사전적 의미에 집중하여, '사실적인 사례'라면 모두 醫案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7] 동일한 이유로, 본 연구는 醫案을 '임상 사례'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관점[8]과는 방향을 달리하였다.

본 연구는 『醫方類聚』 醫案 분포에 대한 통계적 고찰이 주를 이루지만, 곳곳에서 다양한 醫案을 예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醫方類聚』에 醫案이 활용된 양상과 醫案을 활용한 목적에 대해서도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醫方類聚』에 등장하는 인용서 중에서 동일 저자에 의한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고,[9]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서 각각의 醫案의 수에 부득이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극복되어야 할 점이다.

2. 『醫方類聚』의 各 門別 醫案 분포와 활용양상

『醫方類聚』에서 추출한 醫案은 총 1,02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각각의 門별로 나열해본다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婦人門」의 醫案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諸風門」이 73건, 「傷寒門」이 67건, 「養性門」이 60건 「總論門」이 59건, 「小兒門」이 58건의 醫案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 차례도 醫案이 등장하지 않은 門의 개수는 총19개로 적은 편이였다.

표 1. 『醫方類聚』 各 門別 醫案의 수

번호	門名	醫案 數	번호	門名	醫案 數
1	總論	59	51	痼冷	·
2	五臟	2	52	積熱	·
3	諸風	73	53	火	1
4	諸寒	·	54	虛煩	·
5	諸暑	3	55	驚悸	6
6	諸濕	·	56	健忘	·
7	傷寒	67	57	諸寒	·
8	眼	28	58	癲癎	3
9	齒	19	59	中惡	5
10	咽喉	16	60	解毒	20
11	口舌	2	61	酒病	2
12	耳	2	62	蠱毒	10
13	鼻	4	63	諸蟲	1
14	頭面	28	64	辟蟲	1
15	毛髮	2	65	蟲傷	10
16	身體	1	66	獸傷	3
17	四肢	17	67	癮軫	·
18	血病	8	68	疥癬	2
19	諸氣	19	69	諸臭	1
20	諸疝	9	70	癰疽	38
21	陰癩	1	71	丁瘡	1
22	諸痺	9	72	丹毒	2
23	心腹痛	10	73	瘰癧	4
24	腰脚	16	74	諸瘻	·
25	脚氣	9	75	瘻瘤	3
26	脾胃	10	76	痔瘻	22
27	三焦	4	77	便毒	·
28	飜胃	5	78	金瘡	8
29	嘔吐	·	79	諸刺	1
30	膈噎	3	80	折傷	16
31	癨亂	3	81	諸瘡	20
32	沙證	·	82	膏藥	4
33	眩暈	·	83	湯火傷	2
34	宿食	·	84	漆瘡	·
35	積聚	28	85	怪疾	5
36	咳逆	3	86	救急	·
37	咳嗽	14	87	雜病	18
38	聲音	·	88	諸湯	·
39	諸虐	6	89	諸香	·
40	消渴	7	90	養性	60
41	水腫	24	91	婦人	86
42	脹滿	3	92	小兒	58
43	黃疸	6			
44	諸淋	6		합계	1025
45	赤白濁	3			
46	大小便	11			
47	諸痢	17			
48	泄瀉	18			
49	諸虛	37			
50	勞瘵	·			

7) 본고는 '醫案'이라는 글쓰기 장르가 나름의 역사와 개념화, 변천과정이 있다는 것을 견지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 이전의 醫案의 개괄적인 모습을 조명한다는 목표를 지닌다면 마땅히 醫案에 대한 당대의 시각으로 조명해야 하며, 현대에 통용되는 '醫案의 정의'를 기준으로 조명하는 것은 醫案에 대해 오판할 정보를 제공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다. 단 醫案에 대한 당대의 시각에 대해서는 고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案'이 갖는 사전적 의미로써 광범위하게 접근한 것이다.

8) 이러한 방식의 관점은 다음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醫案을 '단순처치', '양생처치', '질병현상', '약물', '기이한 경험', '오치', '미치료 사망' 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오재근. 「조선 의관 허준의 임상 의학 사유 엿보기」. 의사학. 2015;24(3):581-619.

9) 『千金月令』과 『千金方』, 『十形三療』와 『儒門事親』이 그 예이다.

「婦人門」과 「小兒門」에서 醫案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이어서 「諸風門」과 「傷寒門」에서 醫案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醫案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門의 규모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술한 門들은 『醫方類聚』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모든 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아닌데, 각 門별로 주로 인용한 의서와 醫論을 서술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醫方類聚』 「婦人門」에 醫案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婦人門」 자체가 방대해서이기도 하지만, 『婦人大全良方』과 같은 婦人科 전문서적의 醫案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점도 관계가 있다. 「折傷門」이나 「諸瘡門」과 같은 곳에서 다수의 醫案이 발견되는 것도 『外科精要』와 같은 外科 전문 서적의 영향과 유관하다.

한편 『醫方類聚』의 특정 門에서 특정한 醫家나 醫書를 많이 인용한 여부와는 별도로, 『醫方類聚』의 醫案이 광범위한 門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의학에 다양한 주제들이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養性門」과 「總論門」과 같은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적은 부분에도 醫案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醫案의 저술목적과 활용 양상 역시 다양하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養性門」에는 총 60건, 「總論門」에는 총 59건의 醫案이 등장한다.

이에 착안하여 이후부터는 醫案의 활용양상과 그 저술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실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醫方類聚』 「總論門」에 등장하는 『證治提綱』의 醫案부터 살펴본다.

병을 얻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得病有因)

"(전략) 咽喉 쪽이 간지럽고 마비된듯한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가 평소에 (먹는 것을) 즐기느냐 물어보니, 대답하길 항상 비둘기를 먹는다 하였다. 이에 비둘기는 半夏 싹을 먹는 것을 알아, 生薑으로 치료하니 나았다. (후략)"[10]

본 醫案은 『證治提綱』에 나오는 醫案을 『醫方類聚』 「總論門」에서 인용한 것을 소개한 것이다. 본 醫案에서 비둘기를 주로 먹는 환자가 咽喉 쪽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의사는 이 사람이 먹는 것을 물어보았다. 이에 환자가 비둘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자 비둘기가 半夏싹을 많이 먹는 새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生薑을 처방하였더니 나았다고 소개한다. 生薑은 半夏毒을 없애는데 잘 알려진 본초이다.[11]

이 醫案이 저술된 목적은 '半夏毒에 대한 生薑의 효용성'을 드러내는데 있지 않다. 글의 제목에서 밝히듯이 본 醫案은 "得病有因"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즉 咽喉 쪽의 문제가 비둘기 고기 때문이며 엄밀하게는 비둘기가 자주 먹는 半夏로 인한 것인데, '半夏毒'이라는 원인을 잘 파악하여서 치료에 성공하였으므로, 추후에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병의 원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總論門」에 등장하는 『雜記九門』의 醫案을 하나 더 살펴보고 이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한다.

마땅히 금해야 하는데 금하지 않음(當禁不禁)

"병이 나은 후 금기를 범하면 죽는다. 孟太亨이 腫病을 앓았는데 이미 편안해져서 마땅히 음식과 소금, 성생활등을 절제하여야 함에도, 삼가지 않아서 병이 재발하였다. 마침 戴人이 귀가한 때여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곧 죽었다. 郾城에 董德固가 勞嗽가 있었는데, 戴人이 말하기를 "(병이) 나은 후에는 마땅히 房事를 경계해야 한다."하였다. 그 병이 나은 후 그것이 편안한 것을 믿고서, 금기를 범하여 이에 죽었다. 죽은 후 妻가 한 남자아이를 출생하였는데, 정확히 병이 낫던 날에 나온 아이였던 것이다. 董이 처음에 굳게 숨긴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드러났다."[12]

본 醫案은 명확한 환자가 등장하지만, 특정한 처방이나 치료요법 등을 소개하진 않는다. 대신 본 醫案은 '금기'를 잘 지키지 않은 환자가 요절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금기를 지키는 것이 병의 예후에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낸다.

위의 나열한 두 가지 醫案은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치료원칙, 약의 효용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

10) 浙江省中醫硏究所. 『醫方類聚 1권』 「總論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22. "(전략)有人喉間麻癢, 醫問其平日所嗜, 曰常喫鳩子, 乃知鳩食半夏苗, 以生薑治之而愈. (후략)"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2009:588. "[半夏毒]生薑汁飮之又乾薑煮汁服<本草>"

12) 浙江省中醫硏究所. 『醫方類聚 1권』 「總論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31. "病愈後犯禁而死. 孟太亨病腫旣平, 當節食及鹽血房室等, 不愼病再, 適戴人歸家, 無救之者, 乃死. 郾城董德固爲勞嗽, 戴人曰: 愈後當戒房事. 其病愈, 恃其安, 觸禁而死. 死後妻生一子, 正當病瘥之日也. 董初堅諱, 至是乃彰"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7.30.1.023

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방이나 증상, 병기,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치료 결과만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 '원인에 따른 병의 치료'와 같은 治病의 대원칙이나 금기의 중요성과 같은 총론적 이야기를 하는데 醫案을 활용한 것이다.

이어서 상술한 醫案과는 다른 양상의 醫案이 『醫方類聚』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대표적으로 「耳門」에 등장하는 『肘後方』의 醫案을 소개한다.

갑자기 귀가 먹는 것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처방(治卒耳聾諸病方)

"갈씨가 졸연히 귀가 안 들리는데, 巴豆 14개를 찧고 거위 기름을 반량 넣어서 불에 녹인 다음 巴豆에 넣고 섞었다. 팥과 같은 크기로 취하여 솜에 싸서 귀 안에 넣었더니(壽域神方도 같음) 나았다.(후략)"[13]

앞서 예시를 든 「總論門」의 醫案과는 대조적으로 위에 나오는 『肘後方』 醫案은 파두와 거위기름을 이용하여 耳聾을 치료한 것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치료약물과 포제법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앞선 醫案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 醫案에서는 파두를 써야하는 이유나 거위기름이 유용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醫案을 통해서 전달하려 하는 치료의 대원칙이나, 醫論이 무엇인지도 알기 힘들다. 다만 본 醫案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巴豆'와 '오리기름'을 활용하여 耳聾을 치료한 예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치료방법이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본 醫案을 소개한 목적은 학술적인 의학이론이나 거시적인 의학 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용한 처치방법을 명료하게 소개하는데 있다. 이러한 방식의 醫案은 『醫方類聚』 곳곳에 다수 산재해있는데, 특히 方解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곳에 그와 인접하여서 자주 등장한다.

한편 『醫方類聚』 「傷寒門」의 『衛生寶鑑』 醫案은 전술한 醫案들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소개한다.

음증과 양증을 변별함(陰證陽證辨)

"靜江府提刑 李君의 長子가 19세였다. 至元년간 壬午年 4月에 병이 들어 傷寒이 9일이 되었는데, 의사가 陰證으로 치료하여 附子理中丸을 여러 번 복용하게 하였으나, 그 증이 더욱 극심해졌다. 별도로 다른 한 의사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陽證으로 보니 논의에 차이가 있어서 감히 약을 복용하지는 못하였다. 李君이 친히 와서 나에게 의혹을 결단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내가 피하고 사양하였다. 이군이 엎드려 말하길 "태의께서 만약 오지 않는다면, 제 자식은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하였다. 거절하지 못하여 마침내 가서 살펴보았다. 앉아 있는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 증에 대해 직접 말하고자 하지 않았고 다만 세세하게 나누어 헤쳐, 스스로 방도를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무릇 陽證이라는 것은 몸이 모름지기 大熱하고 手足은 厥하지 않으며, 누우면 평탄하다. 일어나면 힘이 있고 惡寒하지 않으며 오히려 惡熱하고 토하지도 않고 설사하지도 않으면서 갈증이 있어 물을 마시며 번조하여 잠들 수 없고 能食하며 말이 많고 그 맥이 浮大하며 數한 것이 陽證인 것이다. 무릇 陰證이라는 것은 몸이 열하지 않고 손발이 厥冷하며 惡寒하며 몸을 구부린 채 누워있고 얼굴이 벽을 향한 채 누워 있으며,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혹 옷을 끌어당겨 덮으려 하고 煩渴하지 않으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며 小便은 自利하고 大便은 도리어 잘 나오며 脈은 沈細하며 微遲한 것이니 이것이 陰證이다. 그 맥을 진찰해보니 沈數하고 6~7회에 이르렀는데, 그 어머니가 이르길 "밤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 끊기지 않으며 완전히 잠들지 않고 냉수를 좋아한다."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陽證이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았는데, 또한 3일 동안 大便을 보지 못하였던 까닭에 마땅히 급히 瀉下시켰다. 내가 마침내 저울로 酒煨한 大黃 6돈, 炙甘草 2돈, 芒硝 1돈을 재어 끓여서 먹게 하였다. 밤이 되자 (변이) 여러 번 나왔는데, 마른 똥이 20여 덩어리가 나온 이후 그날 밤에 땀이 많이 났다. 다음날 또 가서 보니, 몸이 식고 맥이 고요하였다. 내가 『素問·熱論』에서 "치료를 할 때 각각의 장부를 소통시켜 주어라(治之各通其臟腑)"라고 이른 것을 생각하였다. 고로 仲景이 『傷寒論』을 저술하매 "六經은 각각 다르니, 전하여 받는 것이 같지 않다."한 것이다. 『活人書』에서 또한 이르기

13) 浙江省中醫硏究所. 『醫方類聚 4권』 「耳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424. "葛氏耳卒聾, 巴豆十四枚, 擣鵝脂半兩, 火鎔, 內巴豆和, 取如小豆, 緜裹內耳中 壽域神方同. 差, (후략)"

를 "무릇 傷寒을 치료하매 먼저 모름지기 경락을 밝혀야 하니 만약 경락을 알지 못한다면 어두운 길을 더듬어 가는 것과 같다. 이전의 성인과 후대의 성인이 헤아린 것이 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經絡을 공부하지 않고, 병의 근원을 묻지 않으며, 寸과 尺을 診脈하여 망령되게 질병의 증상을 생각하여 邪氣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다가 움직이면 전복되고선 종일토록 뉘우치지 않는다."하였다. 韓文公이 말하길 "의학은 병에 있고 병은 작은 생각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치가 있는 말로 사람들이 배우고 묻는 것을 권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하다."[14]

본『衛生寶鑑』의 醫案은 병을 보는 관점과 치료 방법, 증상의 감별 요점 등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앞에 소개한 醫案들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앞선 醫案들과 달리 본 醫案은 '陰證과 陽證의 구분'이라는 구체적인 醫論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오늘날 알려진 醫案의 일반적인 형태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衛生寶鑑』의 醫案은 대체로 이러한 형태로『醫方類聚』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의 증상과, 병기, 진단, 처방, 예후 등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본고에서 논의한『醫方類聚』醫案의 저술목적과 그 활용양상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의학윤리나 치료강령과 같은 총론적인 사항을 전달하는데 醫案이 활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방이나 증상, 병기 등이 소개되지 않고, 치료나 사망 등의 결과만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서는 治病의 대원칙이나 금기와 같은 총론적 이야기가 전달되거나 의사의 의학수준을 과시하는데 醫案이 활용된다.

둘째, 유용한 처방이나 단순 치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단순 명료한 기술방식이 특징적이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방법만이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醫案은, 처방에 대해 소개하다가 그 처방의 유용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환자의 증상, 병기, 진단, 처방, 예후 등이 하나의 이야기로 꾸려져 있는 것이다. 내용이 길지만 정연한 것이 특징적이며, 오늘날 통용되는 醫案의 정의와 가장 부합하는 형식이다. 독자들에게 의학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醫案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구분은 때때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醫案의 활용양상과 활용이유에 대한 구분이, 모든『醫方類聚』醫案에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러한 시도는『醫方類聚』醫案의 구체적인 양상을 일부 드러내었고, 조선 전기 이전의 '醫案'의 활용양상과 활용목적이 다양하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醫方類聚』醫案의 引用 출처

『醫方類聚』의 醫案 1,025건은 총 58종의 醫書를 출처로 한다. 이중에서『十形三療』에서 인용한 것이 17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澹寮方』에서 96건,『衛生寶鑑』에서 90건,『是齋醫方』에서 66건,『朱氏集驗方』65건,『儒門事親』62건 순으로 각각 引用하였는데, 이렇게 6책을 引用한 것이 총 554건으로 전체의 50%를 넘는다.『醫方類聚』醫案의 引用 출처를 전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14) 浙江省中醫硏究所.『醫方類聚 2권』「傷寒門」.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364. "靜江府提刑 李君長子, 年一十九歲, 至元壬午四月間病, 傷寒九日, 醫者作陰證治之, 與附子理中丸數服, 其證增劇. 別易一醫, 作陽證, 議論差互, 不敢服藥. 李君親來邀, 請予爲決疑, 予避嫌辭. 李君拜泣而告曰: 太醫若不一往, 犬子秖待死矣. 不獲已, 遂往視之. 坐間有數人, 予不欲直言其證, 但細爲分解, 使自忖度之. 凡陽證者, 身須大熱, 而手足不厥, 臥則坦然, 起則有力, 不惡寒, 反惡熱, 不嘔不瀉, 渴而飮水, 煩躁不得眠, 能食而多語, 其脈浮大而數者, 陽證也. 凡陰證者, 身不熱, 而手足厥冷, 惡寒踡臥, 面向壁臥, 惡聞人聲, 或自引衣蓋覆, 不煩渴, 不欲食, 小便自利, 大便反快, 其脈沈細而微遲者, 皆陰證也. 診其脈沈數, 得六七至, 其母云, 夜來叫呼不絶, 全不得睡, 又喜水水. 予聞其言, 陽證悉具, 且三日不見大便, 宜急下之. 予遂秤酒煨 大黃六錢, 炙甘草二錢, 芒硝二錢, 水煎服之. 至夕, 下數行, 燥糞二十餘塊, 是夜汗大出. 翌日, 又往視之, 身涼脈靜矣, 予思素問熱論云: 治之各通其臟腑 故仲景述傷寒論, 六經各異, 傳受不同. 活人書亦云: 凡治傷寒, 先須明經絡, 若不識經絡, 觸途冥行, 前聖後聖, 其揆一也. 昧者不學經絡, 不問病源, 按寸握尺, 妄意疾證, 不知邪氣之所在, 動致顚覆, 終不肯悔. 韓文公曰: 醫在病, 病道少思, 理到之言, 勉人學問, 救生之心重矣."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7.30.1.023

표 2.『醫方類聚』의 각 引用書別 醫案의 수

번호	引用書	醫案 數
1	簡易方	9
2	經驗秘方	8
3	經驗良方	19
4	管見大全良方	5
5	臞僊活人心	2
6	勸善書	2
7	勸善書	2
8	金匱方	1
9	澹寮方	96
10	大全本草	36
11	東垣內外傷辨	1
12	東垣試效方	26
13	得效方	20
14	無求子活人書	1
15	婦人大全良方	26
16	備領百要方	1
17	脾胃論	2
18	祕傳外科方	1
19	三元延壽書	13
20	三因方	12
21	傷寒百問歌	4
22	傷寒活人書	2
23	瑞竹堂方	5
24	聖惠方	4
25	巢氏病源	11
26	小兒藥證直訣	17
27	瑣碎錄	19
28	修月魯般經	6
29	袖珍方	5
30	壽親養老書	15
31	是齋醫方	66
32	神巧萬全方	4
33	十形三療	175
34	御藥院方	1
35	嚴氏濟生方	2
36	延壽書	5
37	煙霞聖効方	1
38	永類鈐方	8
39	玉機微義	28
40	王氏集驗方	12
41	外科精要	17
42	衛生寶鑑	90
43	儒門事親	62
44	陰證略例	12
45	醫方大成	1
46	雜記九門	11
47	朱氏集驗方	65
48	肘後方	14
49	證治提綱	3
50	直指方	4
51	瘡疹方	3
52	千金方	27
53	千金月令	1
54	千金翼方	4
55	治法雜論	3
56	治病百法	2
57	必用全書	1
58	和劑局方	32

『醫方類聚』에 등장하는 醫案이 총 58종의 醫書를 출처로 하는 것은,『醫方類聚』「仁用諸書」가 153종인 것에 비교할 때, 약 38%의 비율이다. 이 중에서 23종의 醫書는 비록 10개 미만의 醫案을 수록하고 있어 그 수는 매우 적지만, '醫案'이라는 글쓰기 장르를 활용하여 醫論을 펼친 것이 몇몇 醫書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꽤 보편적으로 활용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각각의 의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金元代의 張子和의 저서에서 인용한 醫案의 수가 가장 많다.『治病百法』,『治法雜論』,『雜記九門』,『十形三療』는 오늘날에『儒門事親』의 篇名으로 알려져 있지만,『醫方類聚』에서는 이러한 편명들을 고유한 仁用書目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모두 張子和의 저술이다. 상술한 醫書에서 등장하는 醫案들을 모두 합치면 250개가 넘는데, 이는『醫方類聚』 전체 醫案의 약 1/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張子和 다음으로 醫案을 많이 활용한 사람은 중국 원나라의 승려 계홍(繼洪)으로 그가 지은『澹寮方』에서는 약 90여개의 醫案이 소개된다. 그러나 이는 張子和가 소개한 醫案의 수에 약 1/3 정도로, 이로써 醫案 장르를 본인의 글쓰기에 탁월하게 활용한 인물이 張子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醫案이 수록되어 있는 醫書들을 年代별로 살펴본다면 12-13세기의 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술한 張子和의 醫案을 비롯하여『澹寮方』,『衛生寶鑑』,『是齋醫方』,『朱氏集驗方』,『大全本草』,『婦人大全良方』,『東垣試效方』,『瑣碎錄』,『外科精要』,『小兒藥證直訣』 등이 모두 이 시기의 책들이다. 이 책들의 醫案만 합해도 전체 醫案에서 절반이 넘지만, 年代범위를 明代 초기와 宋代까지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醫方類聚』에 등장하는 醫案 중 90% 이상이 포함된다.

『醫方類聚』가 當代 최신 의서들을 많이 반영했다는 점과 宋代 인쇄술의 발달 이후 醫書의 간행이 많아졌다는 점[15]으로 인해 이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이는 明代 이전의 醫案의 歷史를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존의 醫案의 역사는 明代 이후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이전의 시기의 醫案에 대해서는 金元四大家 이외 錢乙, 許叔微 등의 몇몇 비중 있는 醫家를 소개하는 것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16] 이에 본 연구는 12-13세기 金元四大家 醫書 외에도『是齋醫方』(1196),『朱氏集驗方』(1265),『瑣碎錄』(1160),『三元延壽書』(1291)와 같은 생소한 醫書 속에도 다수의 醫

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和劑局方』, 『大全本草』와 같은 處方書에서도 간간히 醫案을 활용한 것을 발견하여, 明代 이전 醫案의 활용이 꽤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高麗 醫書 『備預百要方』에서 발견된 1건의 醫案을 주목할 만하다. 이 醫案은 병을 바라보는 특별한 觀點이 있거나 특정 치료원칙을 지지하기보단 거미에 물렸을 때의 藍(쪽)을 활용한 치험 1례를 소개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인 본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푸른 점이 있는 거미에게 물린 것을 치료하는 처방(青斑蛛咬毒方)
>
> 어떤 사람이 (거미에게) 물려서, 물린 곳이 붉게 되었는데 이것이 목에서 가슴 앞부분까지 이어졌으며, 어깨와 목덜미가 腫滿하고 人事不省하였다. 한 나이든 의사가 있었는데 藍(쪽)을 짓이겨 만든 汁을 취하여, 푸른 점의 거미를 넣었더니 그 거미가 곧 죽었다 .또 웅황 가루를 갈아서 藍汁에 두고, 다시 푸른 점의 거미를 넣었더니 곧 죽었다. 또 사향을 갈아서 藍汁에 두고 다시 거미를 넣으니 곧 물로 변하였다. 이 즙으로 물린 부위를 씻어내었더니, 붓기와 붉은 것이 낫고 편안해졌다.[17]

흥미로운 점은 이 醫案이 『東醫寶鑑』에도 등장한다는 것인데,[18] 『東醫寶鑑』은 『本草』를 인용서적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東醫寶鑑』에서 『本草』라고 인용 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宋代의 『經史證類大觀本草』를 살펴보니,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상세한 내용의 醫案을 서술하면서도 다시 원 출전을 『傳信方』[19]이라고 지칭한다.[20]

정리하자면 『備預百要方』 醫案은 원출전은 唐代 醫書인 『傳信方』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醫案은 여러 서적들에 인용과 재인용을 거치며 『東醫寶鑑』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備預百要方』에 등장한 상기의 醫案은 현재까지 한국 醫書에서 발견된 醫案들 中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Ⅲ. 結論

본 연구는 『醫方類聚』 내에 산재해 있는 醫案을 추출하여, 그 분포와 활용양상, 저술목적, 원출전 등을 파악해서 『醫方類聚』 醫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醫方類聚』가 조선전기 이전의 의서들을 집대성한 책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상기의 기초적인 정보는 곧, 조선 전기 이전 醫案에 대한 개괄이기도 하므로 본 작업은 의사학적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醫方類聚』의 醫案은 총 1,02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각각의 門별로 나열해본다면, 「婦人門」의 醫案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諸風門」이 73건, 「傷寒門」이 67건, 「養性門」이 60건 「總論門」이 59건, 「小兒門」이 58건의 醫案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 차례도 醫案이 등장하지 않은 門의 개수는 총19개이다. 이처럼 『醫方類聚』는 다양한 門에서 醫案을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醫方類聚』 醫案의 활용양상과 저술목적을

---

15) 맹웅재,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외. 『강좌 중국의학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155.

16) 가령 醫案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歷代名医医案选讲』에서는 錢乙, 許叔微, 金元四大家, 陳自明, 王好古, 羅天益, 戴思恭, 滑壽의 저작을 宋金元 時期의 醫案으로 꼽고 있다. 陳大舜 主編. 『歷代名医医案选讲』. 上海: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4:1-2.

17) 浙江省中醫研究所. 『醫方類聚 8권』 「蟲傷」.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167. "青斑蛛咬毒方: 有人被毒, 其所咬處有赤燈挾項, 垂至膺前, 腫滿肩項, 不省人事. 有一老醫, 取藍挼汁, 取青斑蛛置藍汁中, 蜘蛛卽死. 又硏雄黃末, 又置汁中, 又取蜘蛛置之, 卽死. 又硏麝香置汁, 又取蜘蛛投之, 卽化爲水, 以此汁洗咬處, 腫及燈處差而安之."

18) 許浚. 『東醫寶鑑·雜病篇』 「諸傷門」. 서울:南山堂. 2009:584. "又藍汁一椀入雄黃麝香末各一錢和之細飮其汁並點咬處有人被斑蜘蛛咬腫痛垂死得此方卽愈只服藍汁亦好<本草>"

19) "중국 당나라 유우석(劉禹錫)이 818년에 편찬한 의서. 전 2권. 유우석은 자신이 임상에 써 보아 확실히 효험이 있는 방제(方劑)를 모아 집성하였다. 수록된 약 처방은 대개가 험(驗), 편(便), 염(廉)의 원칙에 부합되며, 당, 송의 방서(方書) 중에서 많이 인용하였다. 원나라 이후부터 점차 없어졌다. 1959년 중국 상해과기출판사(上海科技出版社)에서 출판한 ≪전신방집석(傳信方集釋)≫은 주로 옛 처방서에서 집록(輯錄)하였는데, 모두 45방(方)이 있다. 당서·예문지(唐書·藝文誌)에 보인다."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8권』.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598.

20) "刘禹锡 ≪传信方≫ 着其法云：取大蓝汁一碗, 入雄黄, 麝香二物, 随意看多少, 细研, 投蓝汁中, 以点咬处, 若是毒者, 即并细服其汁, 神异之极也. 昔张荐员外在剑南为张廷赏判官, 忽被斑蜘蛛咬项上, 一宿, 咬处有二道赤色, 细如箸, 绕项上, 从胸前下至心；经两宿, 头面肿疼如数升碗大, 肚渐肿, 几至不救. 张相素重荐, 因出家财五百千, 并荐家财又数百千, 募能疗者. 忽一人应召, 云可治. 张相初甚不信, 欲验其方, 遂令目前合药. 其人云：不惜方, 当疗人性命耳. 遂取大蓝汁一瓷碗, 取蜘蛛投之蓝汁, 良久, 方出得汁中, 甚困不能动. 又别捣蓝汁, 加麝香末, 更取蜘蛛投之, 至汁而死. 又更取蓝汁, 麝香, 复加雄黄和之, 更取一蜘蛛投汁中, 随化为水. 张相及诸人甚异之, 遂令点于咬处. 两日内悉平愈." 唐愼微. 『經史證類大觀本草 附 本草衍義 幷札記』. 서울:崇文社. 1976:177.

medicalhistory.jams.or.kr
https://doi.org/10.15521/jkmh.2017.30.1.023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예시를 들었다. 첫째는 의학윤리나 치료 대원칙과 같은 총론적인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방이나 증상, 병기 등은 소개하지 않고, '완치'나 '사망' 등의 결과만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醫案이다. 둘째는 유용한 처방이나 단순 治驗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치료 방법만이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는 醫案이다. 셋째는 독자들에게 의학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환자의 증상, 病機, 진단, 처방, 예후 등을 하나의 이야기로 꾸린 醫案이다. 내용이 길지만 정연하며, 오늘날 통용되는 醫案의 정의와 가장 부합하는 형식이다.

본고는 또한 『醫方類聚』의 醫案을 인용서별로 검토하였다. 『醫方類聚』는 총 58종의 의서에서 醫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로써 醫案이 당대 다수의 의서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활용되던 글쓰기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醫案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인물은 張子和로 보이며, 그의 醫案은 『醫方類聚』 전체 醫案의 약 1/4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醫方類聚』 醫案의 원출전을 年代별로 살펴본다면 宋金元代의 책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醫方類聚』가 當代 최신 의서들을 많이 반영했다는 점과 宋代 인쇄술의 발달 이후 醫書의 간행이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본고는 明代 이전의 醫案의 歷史를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구체적으로 『是齋醫方』(1196), 『朱氏集驗方』(1265), 『瑣碎錄』(1160), 『三元延壽書』(1291)과 같은 생소한 醫書들에 다수의 醫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조선 전기 이전 醫案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 또한 高麗 醫書 『備預百要方』에서도 1건의 醫案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한국의서에 등장하는 最古의 醫案으로 추정되므로 의미가 있다.

한편 『醫方類聚』가 후대의 한국 의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은 앞으로 직면한 과제인데, 본고에서 밝힌 醫案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중국에서 간행된 의서 속의 醫案 다수가 『醫方類聚』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 것이, 향후 조선의 醫案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향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연석, 이상섭, 박희수, 이서영. 「『醫方類聚·癲癎門』을 통해 본 한의학에서 癎疾의 역사」. 한국의사학회지. 2011;24(1):111-117.
2. 안상우, 김남일. 「『醫方類聚』 總論의 體制와 引用方式 分析」. 경희한의대논문집. 1999;22(1):85-106.
3. 안상우. 「『東醫寶鑑』의 '類聚' 인용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0;13(1):59-72.
4. 안상우. 「『醫方類聚』의 編纂과 朝鮮前期 醫書」. 한국의사학회지. 2001;14(2):59-82.
5. 오재근. 「조선 의관 허준의 임상 의학 사유 엿보기」. 의사학. 2015;24(3):581-619.
6. 이경록. 「조선전기 『의방유취』의 성취와 한계 : 상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34(3):461-493.
7. 정지훈, 한봉재, 김동율. 「『醫方類聚』의 導引圖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4;27(1):41-50.
8. 최환수, 신순식. 「『醫方類聚』의 引用書에 관한 연구(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997;3(1):14-40.
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10. 唐愼微. 『經史證類大觀本草 附 本草衍義幷札記』. 서울:崇文社. 1976.
11. 맹웅재,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외. 『韓醫學通史』. 고양:대성의학사. 2006.
12. 맹웅재,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외. 『강좌 중국의학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
13. 浙江省中醫研究所. 『醫方類聚』.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
14. 陳大舜 主編. 『歷代名医医案选讲』. 上海: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4.
15. 許浚. 『東醫寶鑑』. 서울:南山堂. 2009.